

목회와신학

Ministry and Theology

변화의 시대,
교회 개척 가이드



특집 Part 1
개척, 방향을 세우다

특집 Part 2
개척 기본기 레시피

특집 Part 3
길을 찾은 개척자들

the word

책별

여호수아 · 열왕기상

주제별

십계명 제8계명

신
학
의
가
장

2025. September
no. 435

9

변화의 시대, 교회 개척 가이드

특집

Part 1
개척, 방향을 세우다

38
교회 개척의 트렌드 분석

42
선교적 교회 개척이란 무엇인가?

46
개척자의 자기 이해와 역량 관리

50
교회 개척을 위한 6대 핵심
요소와 자가 점검법

Part 2
개척 기본기 레시피

54
말씀과 기도의 펀더멘탈: 10년
개척의 유일한 성장 동력
예배 말씀 기도 레시피

58
플랫폼이 바뀌면 전도도 바뀐다
전도 레시피

62
새 가족을 품는 개척 교회의
여정
공동체 레시피

66
3040세대 겨냥 사역으로
다음 세대 교육의 길을 찾다
교육 레시피

70
고유번호증부터 소득세
신고까지
행정 레시피

74
3년을 버틸 6가지 준비를 하라
자립 레시피

78
개척 이후, 성장을 준비하는
목회
성장 레시피

82
목회자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번아웃 예방 레시피

Part 3
길을 찾은 개척자들

86
6인 6색 개척 이야기

목회

26 시편 묵상(20)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28 건축 묵상(9)
캔터베리 대성당

30 스페셜 인터뷰
교회 회복의 길, 선교적 문화와 다중심
리더십에서 찾다
V3운동 총괄 디렉터 JR우드워드 박사

100 CGN과 함께하는 풍당(9)
교회 개척을 돕는 프로그램

102 소그룹으로 세우는 건강한 교회(3)
유바디 교구, 소그룹과 다음 세대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수원성교회

106 다음 세대와 연결하라(23)
깊이와 재미를 모두 잡은 '오감 성경
교육'
군산삼학교회

110 이색 목회 현장(31)
포도나무 덩굴처럼 적응하고
확장하는 기독교 문화 공동체
바인교회

114 디아스포라 선교적 교회를 찾아서(3)
선교적 제자도, 선교를 잇다
뉴저지 온누리교회(3)

120 흔들리지 않는 가정(8)
부부의 성, 그 깊은 연합의 통로

여호수아 · 열왕기상 십계명 제8계명

독자 설문 참여
(9월 30일까지)



신학

126 창세기의 문을 여는 히브리어 열쇠

새 연재

하나님의 창조와 형상을 의미하는
창세기 1장의 단어

132 시편 설교의 새로운 접근 **새 연재**

‘하나의 시와 ‘하나의 책’ 사이
시편 설교를 새롭게 이해하다

140 헬라어 산책(8)

기도(προσευχή, δέησις, ἔντευξις,
εὐχαριστία) —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148 류호영 교수의 성경신학 세미나(13)

죄 짓는 인간과 용서의 하나님
누가복음 7:36-50

156 중심 주제가 있는 로마서 설교(1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의 정체성
로마서 8:1-25

이슈와 진단

164 이달에 생각한다

AI 시대, 공교육 붕괴와 교회의 교육
주도권 회복

168 이달에 생각한다

시험관 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172 책으로 시대를 읽다(15)

크리스틴 로젠의
《경험의 멸종》

176 미디어 속 트렌드

익숙한, 그러나 새로운 예수님
이야기
영화 <킹 오브 킹스>

북리뷰

180 저자 인터뷰

‘둘째 아들’ 품은 MZ교회,
뉴 패러다임 처치로 초대
《5無 교회가 온다》의 저자
황인권 대표

184 강해 설교를 위한 필독서(21)

<에레미야애가> 설교를 위해 무엇을
읽을 것인가?

188 교회를 위한 성경공부 교재 분석(9)

참된 제자도로 이끄는 복음의 이정표
《예수님의 사람》

192 전문가의 책 읽기

칼 바르트의
《칼 바르트의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 해설》

196 전문가의 책 읽기

새뮤얼 제임스의
《디지털 거미줄을 타는 그리스도인》

깊이와 재미를 모두 잡은 ‘오감 성경 교육’

군산삼학교회

글 안소희 기자 · 사진 군산삼학교회 제공

지난 7월 31일에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군산삼학교회(담임 이상일 목사)에 방문했다. 교회 입구에 들어서니 초록빛 잔디밭 위에서 서 있는 새하얀 건물이가장 먼저 보이고 벽면에 붙은 ‘오감 성경 교육관’이라는 명칭이 눈길을 끈다.

첫인상, 첫 문장, 첫 장면 등 ‘첫’이라는 표현은 그것을 마주하는 사람에게 강렬한 인상과 특정한 메시지를 전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대니얼 카너먼은 자신의 책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닷 내림 효과’라는 개념을 설명한다. 닷을 내린 곳에 배가 머물듯, 사람에게 처음 입력된 정보가 이후 판단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군산삼학교회의 교육관은 오가는 다음 세대와 그 부모들에게 ‘오감 성경 교육’이라는 닷을 내리고 있다.

이상일牧사는 2020년 7월에 군산삼학교회의 3대 목사로 부임했다. 군산 지역은 젊은 세대 이탈과 함께 아이들도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주변의 많은 교회에 교회학교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군산삼학교회도 상당히 고령화 되어,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다음 세대가 청년을 포함해 15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당시 전체 출석 인원이 106명이었던 군산삼학교회는 현재 35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

다. 더 놀라운 건 매주 출석하는 다음 세대가 114명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그 비결은 단 하나, 성경이었다.

오감 활동으로 말씀에 재미를 더하다

이 목사가 군산삼학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는 목회자의 본분은 가르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강해 설교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 한 절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두 가르친다.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을 때, 내시는 ‘가르쳐 주는 이가 없으니 어찌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답합니다. 성경은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교훈만 얻고 끝내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성경적인 사고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이를 목표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목사의 설교는 장년 성도들의 갈급함을 채웠다. 말씀 자체에 재미를 느끼고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성도가 찾아오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어떨까? 이 목사는 다음 세대에게는 설교와 더불어 또 하나의 요소를 더했다. 바로 ‘재미’다.

“아이들은 설교로만 말씀을 접하면 지루해 합



2025년 겨울오감성경학교 현장(왼쪽)과 사사 분장 놀이 활동 모습(오른쪽)

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는 재미있게 가르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오감 활동을 병행합니다. 일종의 성경 레크리에이션입니다.”

오감 활동이란, 사람의 다섯 가지 감각(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활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신체적 활동이 주를 이룬다. 군산삼학교회는 오감 활동을 통해 성경을 가르치고 이를 오감 성경 교육이라고 칭한다.

다음 세대 부서는 주일 설교를 듣고 난 후 2부 순서로 말씀과 관련된 오감 활동을 진행한다. 활동 종류는 아이들에게 익숙한 보드게임을 활용한 활동부터 밀가루나 물감 등을 활용해 이스라엘 입체 지도를 만드는 활동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출애굽 이야기를 배울 때 하는 쓴 나물과 무교병, 메추리 시식은 시각만이 아니라 미각과 촉각, 후각까지 사용하는 활동이라 아이들에게 강렬한 기억을 남긴다.

이 활동에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 이 목사는 “쓴 나물은 한국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지만 무교병은 그렇지 않으니 이스라엘 코셔 푸드를 수입 구매해서 아이들에게 나눠 줍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만큼 군산삼학교회는 아이들에게 생생하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여름과 겨울에는 오감성경학교를 열어 반 년간

배운 말씀을 복습하는데, 대부분 오감 활동 중심으로 진행된다. 덕분에 아이들의 참여율이 높고 진행 기간에도 내내 아이들의 몰입도와 집중도가 높다.

이 목사는 군산삼학교회에 오기 전, 부교역자 시절부터 오감 활동에 관심을 갖고 많은 자료를 모아왔다. 여기에 더해 현재 군산삼학교회 교역자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활동을 창작하고 있다.

활동 자료를 얻는 방법에 대해 이 목사는 “교보재가 없어도 아이디어를 얻을 창구는 다양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임 형식에 내용만 성경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재밌는 활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한다.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반복해서 배우다

오감 활동이 진리를 알게 하는 도구가 되려면 탄탄한 성경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군산삼학교회의 교육 부서 커리큘럼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연대기 순으로, 4번 반복해 배우도록 짜여져 있다. 이는 이 목사가 직접 제작한 커리큘럼이다.

“2015년 부교역자 시절에 초등부 4-6학년울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3년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고, 3년 안에 성경 66권을 모두 가르쳐야겠다는 결

심이 섰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66권을 모두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가진 교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커리큘럼이 그때 제가 제작한 것입니다. 다만 전 학년으로 확장해 3년에 한 번, 12년간 4번 반복하도록 다음 세대 전체 커리큘럼을 세웠습니다.”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년 차 때 신정통치 시대(창세기-룻기)를 배우고, 2년 차 때 왕정 시대부터 포로기 시대(사무엘상-말라기)까지를 배운다. 3년 차 때는 예수님과 그 이후 시대(마태복음-요한계시록)를 배운다. 얼핏 보면 1년 차와 2년 차에 배우는 범위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교육적 의도가 담겨 있다.

“1년 차에 8권만 가르치는 이유는, 율법서라고 불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이후의 책은 모두 율법서에 담긴 언약을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 실천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벌을 받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1년 차에 기초만 잘 다지면 이후의 말씀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교육하는 장점에 대해서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성경을 배우면 드라마처럼 이야기가 이어져 훨씬 수월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예언서도 역사서라는 배경 안에서, 그 예언이 선포된 시점에 배우니 훨씬 입체적으로 익힙니다”라며 설명을 덧붙인다.

성경 중심 교육을 위한 다섯 가지 준비

‘재미’와 ‘반복’을 통한 군산삼학교회의 성경 교육 효과는 매우 크다. 이 목사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이 자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안다며 장년 성도들이 놀랄 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교육을 하려면 다섯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 목사는 전한다.

첫째, 목회자가 먼저 말씀 중심 목회에 대한 분

명한 소신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 “부흥되면 계속하고, 안 되면 그만두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현실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66권 성경 전체의 주요 맥락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예언서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한국 교회가 신앙의 걸음마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수준까지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언서를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기록돼 있습니다.”

셋째, 동역자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목사는 다음 해 커리큘럼을 시작하기 전에 부교역자들과 함께 4박 5일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다. 다음 해 교육 범위를 미리 공부하는 것이다. 교사 교육도 직접 하며 다음 세대를 향해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독려한다.

넷째, 성경을 재밌게 가르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개인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 목사는 덧붙인다. 군산삼학교회는 그동안의 관련 자료를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열람 가능하다.

다섯째, 성경 66권 전체를 모두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시중에 관련한 자료가 없는 이유는 수요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면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자료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를 꿈꾸며

군산삼학교회의 표어 중 하나는 ‘교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자’이다. 군산삼학교회는 다음 세대에 마음과 자원을 아낌없이 쏟으며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군산삼학교회는
오감성경교육을 실시한다.
보드게임을 활용한
활동부터 밀가루나 물감
같은 재료를 활용해
이스라엘 입체 지도를
만드는 활동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다섯 가지
감각을 사용해 성경을
익히기 때문에 재밌고 학습
효과 또한 매우 크다.

“요즘 청년들의 고민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입니다. 저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청년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사명을 일찍 발견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66권을 잘 배워 성경에 정통하고 신실한 준비된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많이 배출되길 꿈꿉니다.”

성경 중심 교육의 열매

커리큘럼 2년 차가 진행 중인 군산삼학교회의 꿈의 씨앗은 잘 자라고 있다. 아이들은 교회에서 배운 찬양을 집에서도 흥얼거리고, “이런 성경 공부는 맨날 해도 좋겠어요”라고 고백한다. 무엇보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다. 이 목사는 한 사례를 소개한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지목했을 때, 사울은 두려워 숨으면서 ‘왜 지극히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우리 집안의 나를 왕으로 선택하십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답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에브라임 출신의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베들레헬에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의 불량배들을 만나 죽게 돼요. 이 일이 알려져 열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몰려와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자기 지파라고 끝까지 싸고 도는 바람에 전쟁이 났어요. 거기서 베냐민 지파 남자 대부분이 죽고 6천여 명만 남았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아이는 2주 전에 그 내용을 배웠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돼 가는 자녀를 보는 부모는 교회에 감사를 전한다.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젊은 부부도 많다. 이에 대해 이 목사는 “시설이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데도 부모들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이유 하나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오직 성경으로

이상일 목사는 부교역자 시절 한 부모에게서 받은 문자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아이가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말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어린 시절 들은 말씀과 목사님, 선생님의 영향이 한 사람의 신앙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에 아이의 고백에 저희 가족 모두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이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 놓아 외쳤던 한마디, “오직 성경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교회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으로 세울 것인가? 이 질문 앞에 군산삼학교회와 이상일 목사의 사례는 그 해답이 성경 안에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

First Planting Seed Conference



안창국

라이트하우스
고양



김관성

라이트하우스
낮은담



임형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이정규

서울시광교회



황인권

인권엔파트너스
파르품삼각



최재영

라이트하우스
파주



홍민기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

개회예배

개척은
고생길이다

예배를
디자인하라

개척교회,
설교로
승부하라

교회 브랜딩
어떻게
할 것인가

라이트하우스
5대가치

오늘도
씨앗을
심는다

소그룹

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 소속 담임목사들이 각 소그룹 모임에 함께합니다.

개척세미나

여기 맨땅에 헤딩하듯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6년간 40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 컨퍼런스 플랜팅 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5.11.10-11

라마다호텔 동대문

세미나 대상

개척을 준비하는 분들 (선착순 100명)

등록비 안내

12만 원, 계좌안내 : 농협/351-1057-3984-83/김영훈

문의 안내

안창국 목사 010-7209-2779 / 김영훈 목사 010-5642-0241